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 신체질량지수(BMI)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 Dysregulation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 A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Body Mass Index(BMI) Groups

조 한 비(Han Bee Jo), 김 정 민(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yle and eating attitude. For this research, questionnaires on personality style, emotional dysregulation and eating attitude were administered to 1370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ased in Seoul. Among 1370 questionnaires collected, 1239 were select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1.0.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female adolescents' BMI, the level of their eating attitude differed significantly. Second, according to female adolescents' BMI, female adolescents'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al dysregulation were found to affect their eating attitude significantly. Third, emotional dysregulation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adolescents' personality style and eating attitude. To be more specific, for the normal weight group of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an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On the contrary, for the overweight and obese groups of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was found to have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an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e ways in which personality and emotional traits contribute to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according to their BMI, an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reatment of adolescents' eating disorder in clinical settings.

▲주제어(Key words) : 여자 청소년(female adolescents), 성격양식(personality style), 정서조절곤란(emotion dysregulation), 섭식태도(eating attitude)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며 2015년 5월 한국가정관리학회 주관 통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바 있음.
* Corresponding Author : Jung Min Kim,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Korea, Tel: +82-2-300-0603, E-mail: jmkim122@mju.ac.kr

I. 서론

섭식태도는 식사, 체중, 체형 등에 관한 전반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M. Alvarenga, F. B. Scagliusi, & S. T. Philippi, 2010). 이상섭식태도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으로 구별되는 섭식장애 집단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절식율, 폭식율이 낮아 섭식장애의 임상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상 집단의 절식, 폭식, 신체불만족 등 다양한 섭식 관련 양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L. B. Mintz & N. E. Betz, 1988). 이러한 이상섭식태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며(Y. Choi, 2010; A. Furnham, N. Badmin, & I. Sneade, 2002; M. L. Pettit, S. C. Jacobs, K. S. Page, & C. V. Porras, 2010), 주로 청소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 Kwon, 2013; R. H. Striegel-Moore et al., 2005).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급격한 신체적 성장 및 성호르몬으로 인한 체형의 변화와 더불어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자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C. M. Weaver, 2002). 여자 청소년의 경우 2차 성징에 따른 지방층의 증가는 신체 불만족을 더욱 부추겨(S. Chaung & J. Park, 1997; R. J. Hazler & E. A. Mellin, 2004), 음식물 섭취의 지나친 제한, 과도한 운동, 하제 사용 등의 이상 섭식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M. Fyler, J. Schumacher, J. Banning, & H. J. Gam, 2014; E. Stice, 2001; 2002; T. L. Tylka, 2004). 한편, 이러한 신체·생리적 변화 외에도 여자 청소년의 이상적인 체중에 대한 기준 또한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H. A. Hausenblas, C. M. Janelle, R. E. Gardner, & B. C. Focht, 2004), 최근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2013)의 조사 결과, 여자 청소년의 80% 이상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36.1%가 자신의 체형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44.7%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고 이중 부적절한 방법의 다이어트를 시도한 경우가 21.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여자 청소년의 과도한 섭식 제한 및 체중조절행위는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J. Tse, T. R. Nansel, D. L. Haynie, S. N. Mehta, & L. Laffel, 2012), 섭식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J. M. Liechty & M. J. Kim, 2013; H. C. Steinhausen, 2009).

섭식태도 혹은 섭식장애 관련 선행 연구들은 신체·생리적 반응, BMI 등의 생물학적 요인(M. Kim, 2012; T. A. Oberndorfer et al., 2013; H. Park, 2014)과 우울, 불안,

자존감, 완벽주의 등의 개인심리적 요인(S. Lee & K. Oh, 2005; K. Oh & H. Jung, 2008; S. B. Sherry, P. L. Hewitt, A. Besser, B. J. McGee, & G. L. Flett, 2004), 혹은 부모, 또래, 대중매체, 신체 비교 등 사회문화적 요인(K. C. Allison & C. L. Park, 2004; H. Lee & J. Kim, 2008; P. J. Shoenbridge & S. G. Growers, 2000)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은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 Attie & J. Brooks-Gunn, 1989; J. Polivy & C. P. Herman, 1993). 구체적으로 섭식태도와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 상태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C. M. Bulik, 2002; J. Burney & H. J. Irwin, 2000; F. Hou et al., 2013; H. Lee & J. Kim, 2014), 우울 또는 불안수준이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에 대한 불만족, 섭식제한, 폭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W. H. Kaye, C. M. Bulik, L. Thornton, N. Barbarich, & K. Masters, 2004; M. P. McCabe & M. A. Vincent, 2003; H. Park, 2014; E. Stice & H. E. Shaw, 2002; A. M. VanBoven & D. L. Espelage, 2006).

한편 특정 정서가 섭식태도를 결정하기보다 기능적인 정서 처리 방식의 부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M. D. Anestis, E. A. Selby, E. L. Fink, & T. E. Joiner,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곤란 변인에 주목하였다. 이제까지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정신병리의 발달, 유지, 재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A. Aldao, S. Nolen-Hoeksema, & S. Schweitzer, 2010; J. Lee & S. Kwon, 2006; J. S. Silk, L. Steinberg, & A. S. Morris, 2003; C. Suveg & J. Zeman, 2004), 섭식장애와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C. Evers, F. M. Stok, & D. T. de Ridder, 2010; A. Harrison, S. Sullivan, K. Tchanturia, & J. Treasure, 2010; N. Ridout, C. Thom, & D. J. Wallis, 2010). 특히 이들 섭식장애 관련 연구들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이 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며, 연구 결과 또한 두 변인들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마르고 싶은 욕구 혹은 신체불만족과 같은 섭식태도의 또 다른 측면들 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개인심리적 변인으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 양식을 가정하였다. 사회지향성은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강한 욕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성향으로 대인관계의 실패에 대한 우려가 특징이다. 반면, 자율지향성은 개인의 목표 성취를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성향으로 자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매우 높아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이 특징이다(A. T. Beck, N. Epstein, & R. Harrison, 1983). 이 두 성격양식 유형들은 모두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지향성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율지향성은 성취 사건에서 실패할 때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다고 보고된다(B. A. Alford & D. M. Gerrity, 2003; J. K. Connor-Smith & B. E. Compas, 2002; C. J. Robins, R. M. Bagby, N. A. Rector, T. R. Lynch, & S. H. Kennedy,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격양식 유형들이 정서조절 기능의 문제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는 정서조절곤란의 결과일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사회지향성과 같이 타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E. D. Krause, C. J. Robins, & T. R. Lynch, 2000). 한편, 섭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인에 대한 의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 욕구, 대인 민감성 등의 관계지향적 특성(J. Arcelus, M. Haslam, C. Farrow, & C. Meyer, 2013; J. G. Atlas, 2004; J. Hayaki, M. A. Friedman, M. A. Whisman, S. S. Delinsky, & K. D. Brownell, 2003; C. T. Pedlow & H. M. Niemeier, 2013)과 이상적 목표 설정 등의 완벽주의, 성취지향적 특성, 통제 욕구(S. J. Egan, T. D. Wade, & R. Shafran, 2011; K. Gunnard et al., 2012; K. Oh & H. Jung, 2008)는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양식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사회지향성/자율지향성 성격양식이 정서 인식, 수용 혹은 조절의 실패에 취약하도록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즉, 이들 성격양식은 정서조절곤란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섭식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 수립은 BMI 변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선행연구 결과, BMI가 증가할수록 목표 체중 도달에 더 집착하고, 음식 자극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가 어려워지며, 신체에 대한 불만이 높고, 섭식 행동이 더 제한적이며, 섭식장애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S. Cruz-Sáez, A. Pascua, K. Salaberria, & E. Echeburúa, 2015; K. Houben, C. Nederkoorn, & A. Jansen, 2014; J. Kim & G. Han, 2008; J. Kim & S. Yi, 2010; Y. Lee et al., 2008; F. V. Wong, K. H. Webber, B. Kidwell, H. W. Forsythe, & I. K. Adams, 2011). 뿐만 아니라 BMI는 섭식장애 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진단 기준 중 하나이기도 하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BMI 집단에 따라 섭식태도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BMI 집단에 따라 성격양식 유형,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 하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BMI 집단 별로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유형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격양식 유형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섭식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각각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는 각각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지역 소재 4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자 고등학교 1학년생 638명, 2학년생 601명을 포함한 총 137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질문지를 제외한 1239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학년과 BMI를 기준으로 한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BMI에 따른 체중범위는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2012)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저체중이 260명(21.0%), 정상체중이 779명(62.9%), 과체중이상이 200명(16.1%)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성격양식 척도

A. T. Beck(1983)이 개발하고 C. J. Robins et al.(1994)이 개정한 성격양식 척도 (Personality Styl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39)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Grade	High school 1st	638(51.5%)
	High school 2nd	601(48.5%)
BMI	Underweight	260(21.0%)
	Normal weight	779(62.9%)
	Overweight and obese	200(16.1%)

Inventory: PSI)를 M. Lee(200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지향성 성격양식과 자율지향성 성격양식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사회지향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 '기분 맞추기', '의존성', 자율지향성은 '완벽주의', '방어적 분리', '통제 욕구' 등 각각 3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48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6점 척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 '동의하지 않는다(2점)',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3점)', '약간 동의한다(4점)', '동의한다(5점)', '전적으로 동의한다(6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양식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으며, 사회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7과 .85였다.

2) 정서조절곤란 척도

K. L. Gratz and L.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 곤란 척도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Y. Cho(200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충동 통제 곤란', '정서 자각 부족', '정서 비수용', '정서 명료성 부족', '정서조절 전략 제한', '목표 지향 수행의 어려움' 등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35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거의 그렇지 않다(1점)', '때때로 그렇다(2점)', '보통 그렇다(3점)', '대부분 그렇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3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 별 Cronbach's α 값은 충동 통제 곤란이 .82, 정서 자각 부족이 .75, 정서 비수용이 .91, 정서 명료성 부족이 .79,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85, 목표 지향 수행의 어려움이 .88이었다.

3) 섭식태도 척도

D. M. Garner(1991)가 개정한 섭식장애 척도(Eating Disorder Inventory-2: EDI-2)를 I. Lee(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심리·행동적 특성 즉, 식사, 체중, 체형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평가하는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

족', '폭식' 등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증상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0이었으며,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불만족, 폭식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0, .84, .75였다.

4) 신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BMI는 자기 보고에 의한 신장과 체중으로 산출되었다(A. Must, G. E. Dallal, & W. H. Dietz, 1991, kg/m^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보고식 신장 및 체중 수치는 신뢰할만한 것으로 나타났다(N. D. Brenner, T. McManus, D. A. Galuska, R. Lowry, & H. Wechsler, 2003)

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6월 23일 서울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문항의 이해와 답변이 원활함을 확인하여 예비 조사에서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2014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서울 소재 4개 여자 고등학교 1,2학년생 총 13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연구자의 설명 후 해당 학급 담임 교사를 통해 각 학급에 배부 및 회수되었다. 회수된 137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131부를 제외한 1239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전체 질문에 대한 응답 시간은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éffe의 사후검증,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른 섭식태도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Sc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BMI 집단에 따른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섭식태도($F=88.03, p<.001$), 마르고 싶은 욕구($F=54.14, p<.001$), 신체 불만족($F=114.41, p<.001$), 폭식($F=18.13, p<.001$)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전체 섭식태도,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족 및 폭식 모두 과체중 이상 집단, 정상체중 집단, 저체중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BMI 집단별 차이

앞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가 BMI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섭식태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BMI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별로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섭식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상관관계분석에서 섭식태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에서 각 회기식의 공차한계는 .40-1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2.48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는 1.81-2.08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저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beta=.30, p<.001$), 정서 자각 부족($\beta=.24,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1.83,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섭식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총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239)

Variable	Min	Max	M	SD
Personality Style	84	253	173.33	23.20
Sociotropy	48	140	92.41	14.73
Autonomy	34	132	80.91	13.92
Emotional Dysregulation	38	151	82.84	21.40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8	40	20.80	6.47
Lack of emotional awareness	8	38	20.55	4.90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7	35	13.80	6.43
Lack of emotional clarity	3	15	6.10	2.68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6	30	12.28	5.24
Difficulties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3	15	9.30	3.33
Eating Attitude	25	108	69.31	15.69
Desire for slimness	7	35	22.46	6.33
Body dissatisfaction	9	45	30.57	7.27
Excessive eating	7	35	16.27	5.37

Table 3. Difference in Eating Attitude by BMI group

	BMI	N	M	SD	F	Schéffe
Eating Attitude	Underweight	260	58.27	14.49	128.90***	a
	Normal Weight	779	70.42	14.39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79.30	13.55		c
Desire for slimness	Underweight	260	18.53	6.88	79.84***	a
	Normal Weight	779	23.12	5.75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25.03	5.49		c
Body dissatisfaction	Underweight	260	25.03	6.21	166.78***	a
	Normal Weight	779	31.04	6.64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35.94	6.03		c
Excessive eating	Underweight	260	14.72	5.30	26.63***	a
	Normal Weight	779	16.26	5.24		b
	Overweight and Obesity	200	18.33	5.32		c

*** $p < .001$

Table 4.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												
2	.31***	-											
3	.26***	.40***	-										
4	.13***	.15***	.33***	-									
5	.38***	.34***	.45***	.16***	-								
6	.31***	.36***	.46***	.38***	.57***	-							
7	.36***	.43***	.65***	.20***	.67***	.57***	-						
8	.34***	.35***	.60***	.14***	.43***	.33***	.58***	-					
9	.41***	.46***	.83***	.50***	.78***	.71***	.85***	.69***	-				
10	.24***	.19***	.16***	.10***	.17***	.12***	.19***	.12***	.20***	-			
11	.19***	.14***	.16***	.16***	.13***	.11***	.16***	.12***	.20***	.62***	-		
12	.20***	.14***	.30***	.17***	.33***	.27***	.35***	.22***	.38***	.44***	.48***	-	
13	.25***	.19***	.24***	.17***	.24***	.19***	.27***	.18***	.30***	.84***	.88***	.74***	-

1. Sociotropy 2. Autonomy 3.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4. Lack of emotional awareness 5.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6. Lack of emotional clarity 7.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8. Difficulties engaging in goal-directed behavior 9. Emotional Dysregulation 10. Desire for slimness 11. Body dissatisfaction 12. Excessive eating 13. Eating Attitude

*** $p < .001$

16%로 나타났다($F=17.34, p<.001$).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beta=.21, p<.01$), 정서 자각 부족($\beta=.15,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0.18, p<.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설명력은 총 8%로 나타났다($F=7.21, p<.01$).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 자각 부족($\beta=.23, p<.01$), 정서조절 전략 제한($\beta=.1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불만족에 대해 정서 자각 부족이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2.48, p<.01$), 정서조절 전략 제한은 이에 3%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신체불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총 9%로 나타났다($F=9.75, p<.001$). 폭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beta=.47, p<.001$),

정서 자각 부족($\beta=.20,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8.08,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폭식에 대한 설명력은 총 17%로 나타났다($F=19.18, p<.001$).

2) 정상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 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beta=.21, p<.001$), 충동 통제 곤란($\beta=.15, p<.001$), 정서 비수용($\beta=.11,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0.15,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이에 3%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58.24, p<.001$), 정서 비수용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섭식태

Table 5. The Relative Influence of Female Adolescents' Personality Style and Emotional Dysregulation on Eating Attitude by BMI group

BMI group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β	R ²	ΔR^2	F	
Underweight	Desire for slimness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33	.21**	.06		10.18**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0	.15*	.08	.02	7.21**	
	Body dissatisfaction	1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8	.23**	.06		12.48**	
		2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24	.19*	.09	.03	9.75***	
	Excessive eating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52	.47***	.13		28.08***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1	.20**	.17	.04	19.18***	
	Eating Attitude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91	.30***	.11		21.83***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70	.24***	.16	.05	17.34***	
	Normal weight	Desire for slimness	1	Sociotropy	.10	.24***	.07		67.81***
			2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09	.10**	.08	.01	38.99***
Body dissatisfaction		1	Sociotropy	.08	.18***	.05		42.32***	
		2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10	.10**	.06	.01	28.85***	
		3	Lack of emotional awareness	.12	.09*	.07	.01	21.38***	
Excessive eating		1	Limited access to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14	.14**	.11		111.51***	
		2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14	.17***	.13	.02	67.36***	
		3	Sociotropy	.03	.08*	.14	.01	47.25***	
		4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08	.10*	.14	.00	36.97***	
Eating Attitude		1	Sociotropy	.20	.21***	.08		80.15***	
	2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32	.15***	.12	.03	58.24***		
	3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25	.11**	.13	.01	42.06***		
Overweight and obese	Desire for slimness	1	Sociotropy	.11	.27***	.07		15.04***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9	.25***	.11	.04	12.70***	
	Body dissatisfaction	1	Autonomy	.21	.26***	.09		19.66***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26	.22**	.14	.05	17.64***	
	Excessive eating	1	Impulse control difficulties	.24	.30***	.18		44.58***	
		2	Nonacceptance of emotional responses	.12	.16*	.20	.02	25.19***	
		3	Lack of emotional awareness	.14	.14*	.21	.01	18.44***	
	Eating Attitude	1	Autonomy	.23	.26***	.12		29.26***	
		2	Lack of emotional awareness	.71	.28***	.20	.08	25.96***	
		3	Sociotropy	.16	.18**	.22	.02	20.18***	

* $p < .05$, ** $p < .01$, *** $p < .001$

도에 대한 설명력은 총 13%로 나타났다($F=42.06$, $p<.001$).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beta=.24$, $p<.001$), 충동 통제 곤란($\beta=.10$,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7.81$,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설명력은 총 8%로 나타났다($F=38.99$, $p<.001$).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beta=.18$, $p<.001$), 충동 통제 곤란($\beta=.10$, $p<.01$), 정서 자각 부족($\beta=.09$,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불만족에 대해서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F=42.32$,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이에 1%의 설명력을 추가하였으며($F=28.85$,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신체불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총 7%로 나타났다($F=21.38$, $p<.001$). 폭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 제한($\beta=.14$, $p<.01$), 정서 비수용($\beta=.17$, $p<.001$), 사회지향성($\beta=.08$, $p<.05$), 충동 통제 곤란($\beta=.10$,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서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11.51, p<.001$), 정서 비수용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67.36, p<.001$) 사회지향성은 이에 1%의 설명력을($F=47.25, p<.001$), 충동 통제 곤란은 다시 1% 미만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폭식에 대한 설명력은 총 17%로 나타났다($F=36.97, p<.001$).

3) 과체중이상 집단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분석 결과, 전체 섭식태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자율지향성($\beta=.26, p<.001$), 정서 자각 부족($\beta=.28, p<.001$), 사회지향성($\beta=.18,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섭식태도에 대해서 자율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9.26,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8%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25.96, p<.001$), 사회지향성은 다시 2%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전체 섭식태도에 대한 설명력은 총 22%로 나타났다($F=20.18, p<.001$).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지향성($\beta=.27, p<.001$), 정서 자각 부족($\beta=.25, p<.0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사회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5.04,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4%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마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설명력은 총 11%로 나타났다($F=12.70, p<.001$). 신체불만족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율지향성($\beta=.26, p<.001$), 정서 자각 부족($\beta=.22, p<.01$)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불만족에 대해서 자율지향성이 전체 변량의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9.66, p<.001$), 정서 자각 부족은 이에 5%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신체불만족에 대한 설명력은 총 14%로 나타났다($F=17.64, p<.001$). 폭식을 설명하는 변인은 충동 통제 곤란($\beta=.30, p<.001$), 정서 비수용($\beta=.16, p<.05$), 정서 자각 부족($\beta=.14, p<.0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폭식에 대해서 정서조절 전략 제한이 전체 변량의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44.58, p<.001$), 정서 비수용은 이에 2%의 설명력을 추가하였고($F=25.19, p<.001$) 사회지향성은 다시 1%의 설명력을 추가하여 폭식에 대한 설명력은 총 21%로 나타났다($F=18.44, p<.001$).

3.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BMI 집단별 차이

앞서 여자 청소년의 섭식태도가 BMI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또한 BMI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체중 집단의 경우,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아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상체중 집단과 과체중이상 집단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조절곤란이 성격양식과 섭식태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 and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각 회기식의 공차한계는 .79-1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1.27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수는 1.91-2.07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 정상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지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42, p<.001$), 2단계에서 사회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28, p<.0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23, p<.001$),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18, p<.001$).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6>.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31, p<.001$).

2) 정상체중 집단 여자 청소년의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율지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48, p<.001$), 2단계에서 자율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19, p<.0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Normal weight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 ²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 Mediator	Sociotropy → Emotional Dysregulation	.42***	.17	163.70***
	2. Independent → Dependent	Sociotropy → Eating Attitude	.28***	.08	65.80***
	3. Independent → Dependent Mediator → Dependent	Sociotropy → Eating Attitude Emotional Dysregulation → Eating Attitude	.18*** .23***	.12	54.13***

***p < .001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Normal weight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 ²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 Mediator	Autonomy → Emotional Dysregulation	.48***	.23	228.07***
	2. Independent → Dependent	Autonomy → Eating Attitude	.19***	.04	28.87***
	3. Independent → Dependent Mediator → Dependent	Autonomy → Eating Attitude Emotional Dysregulation → Eating Attitude	.06 .28***	.10	41.77***

***p < .001

Table 8. The Mediating Effect of Overweight and obese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Sociotrop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 ²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 Mediator	Sociotropy → Emotional Dysregulation	.48***	.23	57.85***
	2. Independent → Dependent	Sociotropy → Eating Attitude	.31***	.09	20.36***
	3. Independent → Dependent Mediator → Dependent	Sociotropy → Eating Attitude Emotional Dysregulation → Eating Attitude	.14 .34***	.18	22.21***

***p < .001

Table 9. The Mediating Effect of Overweight and obese Female Adolescents' Emotional Dys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Eating Attitude

	Step	Variable	β	R ²	F
Eating Attitude	1. Independent → Mediator	Autonomy → Emotional Dysregulation	.50***	.25	66.25***
	2. Independent → Dependent	Autonomy → Eating Attitude	.36***	.13	29.26***
	3. Independent → Dependent Mediator → Dependent	Autonomy → Eating Attitude Emotional Dysregulation → Eating Attitude	.21*** .31***	.20	24.57***

***p < .001

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28, p<.001$),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7>.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7.67, p<.001$).

3) 과체중이상 집단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지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48, p<.001$), 2단계에서 사회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31, p<.0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34, p<.001$),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8>.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83, p<.001$).

4) 과체중이상 집단 여자 청소년의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율지향성이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50, p<.001$), 2단계에서 자율지향성이 종속변인인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하였다($\beta=.36, p<.0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고($\beta=.31, p<.001$),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 회귀방정식보다 감소하였다($\beta=.21, p<.01$). 그러므로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Table 9>. 또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4.95, p<.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정서조절곤란 및 섭식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청소년의 BMI 집단에 따라 섭식태도는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섭식태도와 섭식태도의

하위요인들인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족 및 폭식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과체중 이상 집단, 정상체중 집단, 저체중 집단의 순으로 마르고 싶은 욕구, 신체 불만족 및 폭식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MI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섭식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 결과는 섭식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수행된 관련 선행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것이다(J. Kim & G. Han, 2008; J. Kim & S. Yi, 2010; M. Kim, 2012; Y. Lee et al., 2008; H. Park, 2014). 단, 섭식장애로 진단된 임상집단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F. Rotella et al., 2013; J. Ruuska, R. Kaltiala-Heino, P. Rantanen, & A. M. Koivisto, 2005).

둘째,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과 정서조절곤란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저체중 집단의 경우 전체 섭식태도, 마르고 싶은 욕구, 폭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섭식장애 집단 대상 연구에서 BMI가 낮을수록 정서를 억압, 회피하는 등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이다(U. N. Danner, L. Sternheim, & C. Evers, 2014; A. Harrison et al., 2010; J. E. Wildes, R. M. Ringham, & M. D. Marcus, 2010). 반면, 신체불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정서 자각 부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BMI가 낮은 섭식장애 집단의 경우, 정서 자극에 대한 두려움이 높다는 보고와 관련이 있다(K. Ioannou & J. R. Fox, 2009; A. A. Joos, E. Cabrillac, A. Hartmann, M. Wirsching, & A. Zeeck, 2009). 또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같은 저체중 섭식장애에서 자신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의 어려움과 왜곡된 신체상 지각이 흔히 발견되는 것(S. Gaudio & C. C. Quattrocchi, 2012; E. Gilboa-Schechtman, L. Avnon, E. Zubery, & P. Jeczmiem, 2006; A. Harrison, S. Sullivan, K. Tchanturia, & J. Treasure, 2009)과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자 청소년 저체중 집단의 섭식태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서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서조절 훈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자 청소년 정상체중 집단의 경우 사회지향성 성격양식이 폭식을 제외한 섭식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 성격양식이 두드러질수록 섭식태도 문제에 취약함을 가리킨다. 타인의 평가 혹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성향은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

형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마른 몸매를 원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폭식은 정서조절 전략의 제한에 의해 가장 잘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식행동과 정서조절곤란 간의 연관성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M. Lee & K. Chae, 2012). 이러한 결과는 폭식행동이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려는 부적응적 대처 전략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연구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C. Evers et al., 2010; A. Overton, S. Selway, K. Strongman, & M. Houston, 2005; D. M. Tice, E. Bratslavsky, & R. F. Baumeister, 2001).

마지막으로 여자 청소년 과체중이상 집단의 경우에는 섭식태도의 하위 요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르고 싶은 욕구는 정상체중 집단과 동일하게 사회지향성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드러나 과도한 대인관계 의식 또는 의존성이 마르고 싶은 욕구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체불만족은 자율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불만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기준에 의한 것으로(E. Stice & H. E. Shaw, 2002), 완벽주의, 통제 욕구 등의 자율지향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D. M. Dunkley & C. M. Grilo, 2007; K. Oh & H. Jung, 2008; G. M. Ruggiero, D. Levi, A. Ciuna, & S. S. asaroli, 2003; T. D. Wade & M. Tiggemann, 2013). 더욱이 BMI가 높을수록 목표 체중을 의식하므로(F. V. Wong et al., 2011)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율지향적 여자 청소년의 신체불만족 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폭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충동 통제 곤란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충동 수준 및 낮은 자기 통제가 폭식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뒷받침하는 것이다(G. Kim & Y. Kang, 2007; J. Park & H. Bang, 2013). 또한 BMI가 높을수록 음식 자극에 관한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된 것과 연관이 있다(C. Braet, L. Claus, S. Verbeke, & L. Van Vlierberghe, 2007; K. Houben et al., 2014; C. Nederkoorn, K. Houben, W. Hofmann, A. Roefs, & A. Jansen, 2010).

한편, BMI를 고려하지 않은 폭식 관련 선행 연구들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보고한 데 반해(M. Lee & K. Chae, 2012; J. Park & H. Bang, 2013), 본 연구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신체지량지수(BMI) 집단에 따라 폭식에 대한 예측 변인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저체중 혹은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폭식행

동은 정서 조절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반면, 과체중이상의 경우 충동 통제의 부족이 폭식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BMI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곤란은 BMI 집단에 따라 부분 매개 또는 완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율지향성이 정서조절곤란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곤란이 다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즉, 자율지향적 성향의 여자 청소년이 정서조절곤란을 겪지 않을 경우, 부적응적 섭식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낮으나, 정서조절곤란이 수반될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들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 사회지향적 성격양식이 정서조절의 문제 없이도 부적응적 섭식태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율지향적 성격양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섭식태도 문제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섭식 문제를 보이는 자율지향적 성향의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서조절 훈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사회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완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지향성이 직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주기보다,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미침을 가리킨다. 즉,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사회지향성 수준이 높을 경우 섭식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은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율지향성이 섭식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혹은 정서조절곤란이라는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섭식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상체중 여자 청소년의 경우와 상반된 것으로 과체중이상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율지향적 성격양식이 사회지향적 성격양식에 비해 섭식태도 문제에 더 취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볼 때, 여자 청소년의 성격양식 유형과 정서 조절곤란은 섭식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는데, BMI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과 매개효과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이상섭식태도 또는 섭식장애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BMI 수준을 고려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BMI는 실제 측정 수치가 아닌 연구 대상자들의 자기 보고에 의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섭식장애 척도(EDI-2)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Garner, 1991) 일반 여자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도출된 본 연구 결과가 섭식장애 임상집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ldao, A., Nolen-Hoeksema, S., & Schweizer, S. (2010). Emotion-regulation strategies across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17-237.
- Alford, B. A., & Gerrity, D. M. (2003). The specificity of sociotropy autonomy personality dimensions to depression vs. anxie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10), 1069-1075.
- Allison, K. C., & Park, C. L. (2004). A prospective study of disordered eating among sorority and non-sorority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3), 354-358.
- Alvarenga, M., Scagliusi, F. B., & Philippi, S. T. (2010).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disordered eating attitude scale(DEAS) 1, 2.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10*(2), 379-395.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nestis, M. D., Selby, E. A., Fink, E. L., & Joiner, T. E. (2007). The multifaceted role of distress tolerance in dysregulated eating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0*(8), 718-726.
- Arcelus, J., Haslam, M., Farrow, C., & Meyer, C. (2013). The role of interpersonal functioning in the maintenance of eating psychopathology: A systematic review and testable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1), 156-167.
- Atlas, J. G. (2004). Interpersonal sensitivity, eating disorder symptoms, and eating/thinness expectancies. *Current Psychology, 22*(4), 368-378.
- Attie, L., & Brooks-Gunn, J. (1989). Development of eating problems in adolescent girl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5*(1), 70-79.
- Beck, A. T., Epstein, N., & Harrison, R. (1983). Cognitions, attitudes and personality dimensions in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1), 1-16.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 Clayton, J.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pp. 265 - 290). New York: Raven Press.
- Braet, C., Claus, L., Verbeken, S., & Van Vlierberghe, L. (2007). Impulsivity in overweight children.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6*(8), 473-483.
- Brener, N. D., McManus, T., Galuska, D. A., Lowry, R., & Wechsler, H. (200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reported height and weight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2*(4), 281-287.
- Bulik, C. M. (2002). Anxiety,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s. *Eating disorders and obesity: A comprehensive handbook, 2*(1), 193-198.
- Burney, J., & Irwin, H. J. (2000). Shame and guilt in women with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1), 51-61.
- Chaung, S.-K., & Park, J.-S. (1997). Weight control practices, obesity and body image of adolescent girl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4*(2), 171-184.
- Cho, Y. R. (2007). Assessing emotional dysregulation: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Korean vers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4), 1015-1038.
- Choi, Y.-K. (2010). Overview of women's mental health: Gender bias and gender-specific risk factors. *Gender and Culture, 3*(1), 203-232.
- Connor-Smith, J. K., & Compas, B. E. (2002). Vulnerability to social stress: Coping as a media-

- tor or moderator of sociotropy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1), 39-55.
- Cruz-Sáez, S., Pascual, A., Salaberria, K., & Echeburúa, E. (2015). Normal-weight and overweight female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extreme weight-control behaviours: Emotional distress and body image concern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6), 730-740.
- Danner, U. N., Sternheim, L., & Evers, C. (2014).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different eating disorders (sub) types when assessing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Psychiatry Research*, 215(3), 727-732.
- Dunkley, D. M., & Grilo, C. M. (2007). Self-criticism, low self-esteem, depressive symptoms, and over-evaluation of shape and weight in binge eating disorder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1), 139-149.
- Egan, S. J., Wade, T. D., & Shafran, R. (2011). Perfectionism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A clin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2), 203-212.
- Evers, C., Stok, F. M., & de Ridder, D. T. (2010). Feeding your feelings: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eat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6), 792-804.
- Furnham, A., Badmin, N., & Sneade, I. (2002). Body image dis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reasons for exerci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6), 581-596.
- Fyler, M., Schumacher, J., Banning, J., & Gam, H. J. (2014). Influence of body satisfaction, body mass index, and diet quality on healthy eat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42(4), 330-340.
- Garner, D. M. (1991). *Eating disorder inventory-2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orida: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audio, S., & Quattrocchi, C. C. (2012). Neural basis of a multidimensional model of body image distortion in anorexia nervosa. *Neuroscience & Biobehavioral Reviews*, 36(8), 1839-1847.
- Gilboa Schechtman, E., Avnon, L., Zubery, E., & Jeczmiern, P. (2006). Emotional processing in eating disorders: Specific impairment or general distress related deficiency?. *Depression and Anxiety*, 23(6), 331-339.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Gunnard, K., Krug, I., Jiménez Murcia, S., Penelo, E., Granero, R., Treasure, J., Tchanturia, K., Karwautz, A., Collier, D., & Menchn, J. M. (2012). Relevance of social and self standards in eating disorder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20(4), 271-278.
- Harrison, A., Sullivan, S., Tchanturia, K., & Treasure, J. (2009). Emotion recognition and regulation in anorexia nervosa.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6(4), 348-356.
- Harrison, A., Sullivan, S., Tchanturia, K., & Treasure, J. (2010). Emotional functioning in eating disorders: Attentional bias, emotion recognition and emotion regulation. *Psychological Medicine*, 40(11), 1887-1897.
- Hausenblas, H. A., Janelle, C. M., Gardner, R. E., & Focht, B. C. (2004). Viewing physique slides: Affective responses of women at high and low drive for thin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1), 45-60.
- Hayaki, J., Friedman, M. A., Whisman, M. A., Delinsky, S. S., & Brownell, K. D. (2003). Sociotropy and bulimic symptoms in clinical and nonclinical samp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4(1), 172-176.
- Hazler, R. J., & Mellin, E. A. (2004). The developmental origins and treatment needs of female adolescents with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1), 18-24.
- Hou, F., Xu, S., Zhao, Y., Lu, Q., Zhang, S., Zu, P., Sun, Y., Su, P., Tao, F. (2013). Effects of emotional symptoms and life stress on eat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ppetite*, 68(1), 63-68.
- Houben, K., Nederkoorn, C., & Jansen, A. (2014). Eating on impulse: The relation between overweight and food specific inhibitory control. *Obesity*, 22(5), 6-8.
- Ioannou, K., & Fox, J. R. (2009). Perception of threat

- from emotions and its role in poor emotional expression within eating 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16(4), 336-347.
- Joos, A. A., Cabrillac, E., Hartmann, A., Wirsching, M., & Zeeck, A. (2009). Emotional perception in eating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2(4), 318-325.
- Kaye, W. H., Bulik, C. M., Thornton, L., Barbarich, N., & Masters, K. (2004). Comorbidity of anxiety disorders with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12), 2215-2221.
- Kim, G.-S., & Kang, Y.-J. (2007). The effect of female adolescent body-related variables, self-esteem and internal control on eating disorder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3), 77-87.
- Kim, J.-M., & Han, G.-H. (2008). The effects of mass media, tendency for appearance comparison and BMI on fema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eat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4), 73-83.
- Kim, J.-M., & Yi, S.-J. (2010).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and self-esteem on body im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6), 1-12.
- Kim, M.-J. (2012). BMI, body image, food habit and food attitude in college femal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0), 389-395.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3). *The ninth(2013)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ejong: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2). *Obesity clinic manual 2012*. Seoul: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 Krause, E. D., Robins, C. I., & Lynch, T. R. (2000). A mediational model relating sociotrop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disordered eat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4), 328-335.
- Kwon, S.-M. (2013). *Contemporary abnormal psychology*. Seoul: Hakjisa.
- Lee, H. S., & Kim, J. M. (2014). The effect of self-forgiveness, the forgiveness of others, shame and guilt on female adolescents' eating attitud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117-131.
- Lee, H.-R., & Kim, J. M. (2008).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factors, impulsivity and perfectionism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eating attitude. *Journal of Humanities*, 29(1), 39-51.
- Lee, I. S. (1997). Eating and dieting style of college wome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1), 87-100.
- Lee, J. & Kwon, S. (2006).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Rec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task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18(3), 461-493.
- Lee, M. K. (2000).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PSI - 2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 2).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2), 305-317.
- Lee, M.-H., & Chae, K.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affect and binge eating behavior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ifficulties with emotional regulation.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2(2), 129-144.
- Lee, S. S., & Oh, K. J. (2005). Understanding the relation of anorexic and bulimic behavior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791-813.
- Lee, Y., Shin, H.-K., Choi, B.-M., Eun, B.-L., Park, S.-H., Lee, K.-H., & Shin, C. (2008). A survey of body shape perception and weight control of adolescent girls in three areas of Korea.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51(2), 134-144.
- Liechty, J. M., & Lee, M. J. (2013). Longitudinal predictors of dieting and disordered eating among young adults in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6(8), 790-800.
- McCabe, M. P., & Vincent, M. A. (2003). The role of bio-develop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disordered eating among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 11(4), 315-328.
- Mintz, L. B., & Betz, N. E. (1988).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ating disordered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4), 463-471.
- Must, A., Dallal, G. E., & Dietz, W. H. (1991). Reference data for obesity: 85th and 95th percentiles of body mass index (wt/ht²) and triceps skinfold

- thickness.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3(4), 839-846.
- Nederkorn, C., Houben, K., Hofmann, W., Roefs, A., & Jansen, A. (2010). Control yourself or just eat what you like? Weight gain over a year is predicted by an interactive effect of response inhibition and implicit preference for snack foods. *Health Psychology*, 29(4), 389-393.
- Oberndorfer, T. A., Frank, G. K., Simmons, A. N., Wagner, A., McCurdy, D., Fudge, J. L., Yang, T. T., Paulus, M. P., & Kaye, W. H. (2013). Altered insula response to sweet taste processing after recovery from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70(10), 1143-1151.
- Oh, K. J., & Jung, H. G. (2008).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motion regulation style on anorexic and binge ea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1), 41-55.
- Overton, A., Selway, S., Strongman, K., & Houston, M. (2005). Eating disorders—the regulation of positive as well as negative emotion experien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2(1), 39-56.
- Park, H. R. (2014). *The effect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lf-compassion, depression and anxiety on eating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Park, J. H., & Bang, H. J.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tropy, emotion dysregulation, and binge ea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3), 653-674.
- Pedlow, C. T., & Niemeier, H. M. (2013). Sociotropic cognition and eating disordered attitudes and behavior in young adults. *Eating Behaviors*, 14(2), 95-101.
- Pettit, M. L., Jacobs, S. C., Page, K. S., & Porras, C. V. (2010). An assessment of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eating attitudes among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41(1), 46-52.
- Polivy, J., & Herman, C. P. (1993). Etiology of binge eating: Psychological mechanisms. In Fairburn, C. G., Wilson, G. T. (Eds.), *Binge eating: Nature, assessment, and treatment*, (pp. 173-205). New York: Guilford Press.
- Ridout, N., Thom, C., & Wallis, D. J. (2010). Emotion recognition and alexithymia in females with non-clinical disordered eating. *Eating Behaviors*, 11(1), 1-5.
- Robins, C. J., Bagby, R. M., Rector, N. A., Lynch, T. R., & Kennedy, S. H. (1997). Sociotropy, autonomy, and patterns of symptom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on: A comparison of dimensional and categorical approach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3), 285-300.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4), 277-300.
- Rotella, F., Castellini, G., Montanelli, L., Rotella, C. M., Faravelli, C., & Ricca, V. (2013). Comparison between normal-weight and overweight bulimic patients.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18(4), 389-393.
- Ruggiero, G. M., Levi, D., Ciuna, A., & Sassaroli, S. (2003). Stress situation reveals an associ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rive for thin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4(2), 220-226.
- Ruuska, J., Kaltiala-Heino, R., Rantanen, P., & Koivisto, A. M. (2005).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attitudinal body image between adolescent anorexia nervosa and bulimia nervosa?. *Eating and Weight Disorders-Studies on Anorexia, Bulimia and Obesity*, 10(2), 98-106.
- Sherry, S. B., Hewitt, P. L., Besser, A., McGee, B. J., & Flett, G. L. (2004). Self-oriented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 the eating disorder inventory perfectionism sub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5(1), 69-79.
- Shoebriidge, P. J., & Gowers, S. G. (2000). Parental high concern and adolescent-onset anorexia nervosa a case-control study to investigate direction of causality.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6(2), 132-137.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teinhausen, H. C. (2009). Outcome of eating disorders.

-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8(1), 225-242.
- Stice, E. (2001). A prospective test of the dual-pathway model of bulimic pathology: Mediating effects of dieting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0(1), 124-135.
- Stice, E. (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5), 825-848.
- Stice, E., & Shaw, H. E. (2002). Role of body dissatisfaction in the onset and maintenance of eating pathology: A synthesis of research finding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3(5), 985-993.
- Striegel-Moore, R. H., Dohm, F. A., Kraemer, H. C., Schreiber, G. B., Crawford, P. B., & Daniels, S. R. (2005). Health services use in women with a history of bulimia nervosa or binge eating disorder.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37(1), 11-18.
- Suveg, C., & Zeman, J. (2004).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4), 750-759.
- Tice, D. M., Bratslavsky, E., & Baumeister, R. F. (2001). Emotional distress regulation takes precedence over impulse control: If you feel bad, do i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1), 53-67.
- Tse, J., Nansel, T. R., Haynie, D. L., Mehta, S. N., & Laffel, L. (2012).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poorer diet quality in adolescents with type 1 diabetes. *Journal of The Academy of Nutrition and Dietetics*, 112(11), 1810-1814.
- Tylka, T. L. (2004). The relation between body dis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An analysis of moderating variab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178-191.
- VanBoven, A. M., & Espelage, D. L. (2006). Depressive symptoms, coping strategies, and disordered eating among college wome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4(3), 341-348.
- Wade, T. D., & Tiggemann, M. (2013). The role of perfectionism in body dissatisfaction.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2), 1-6.
- Weaver, C. M. (2002). Adolescence. *Endocrine*, 17(1), 43-48.
- Wildes, J. E., & Marcus, M. D. (2011). Development of emotion acceptance behavior therapy for anorexia nervosa: A case se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44(5), 421-427.
- Wong, F. V., Webber, K. H., Kidwell, B., Forsythe, H. W., & Adams, I. K. (2011, October). The associations among eating behavio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Body Mass Index in female college students.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Scientific Meeting of the Obesity Society, Orlando, Florida.

Received: July 15. 2015

Revised: September 28. 2015

Accepted: September 30. 2015